

2005學年度

碩士學位請求論文

설교자로서의 칼빈 연구

A Study on Calvin as a Preacher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科 牧會學專攻

廉 尙 洙

설교자로서의 칼빈 연구

A Study on Calvin as a Preacher

指導 리 영 일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년 12월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科 牧會學專攻

廉 尙 洙

감사의 글

먼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신학적 지식의 가르침과 사랑의 기도와 헌신적 봉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셨던 조병수 교수님, 최만수 교수님, 한재호 교수님, 허 주 교수님, 개혁신학에 무지했던 저에게 좋은 가르침으로 뼈대를 다잡아 주셨던 김성봉 교수님, 김영규 교수님, 김재규 교수님, 조석만 교수님, 강해설교와 교회에 대한 꿈을 나눠주셨던 박종근 교수님, 이재욱 교수님, 최준학 교수님, 어두웠던 역사신학의 분야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셨던 라은성 교수님, 이은선 교수님, 이종진 교수님, 특별히 교단의 선배며 파송목사로서 큰 사랑과 가르침으로 오늘에 이르도록 격려하시며 친히 이 논문을 지도해 주신 리영일 교수님,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관계자분들까지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역 현장에서 목회와 신학의 일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주신 은혜교회 엄홍대 목사님,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며 동역자로 옆을 지켜주며 사역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었던 김동하 집사, 깊은 사랑과 이해로 사역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며 기도해주신 성도님들, 그 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보아 주신 부모님과 장인·장모님의 지극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아울러 사랑의 인내와 헌신으로 격려하고, 지원하고, 힘이 되어주며,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인 재빈과 재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05년 12월

염 상 수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동기와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3
제2장 칼빈의 생애와 설교 사역	4
제1절 칼빈의 생애	5
제2절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설교 사역	8
제3장 칼빈의 설교관	11
제1절 성경에 대한 인식	11
(1) 성경의 필요성	11
(2) 성경의 영감	13
(3) 성경의 권위	16
(4) 성령의 내적 증거	18
제2절 설교자에 대한 인식	20
제3절 회중에 대한 인식	22
제4장 칼빈의 성경해석과 설교 연구	26
제1절 칼빈의 성경 해석	26
(1) 칼빈의 해석에 있어서 전제들	26
(2) 칼빈의 성경 해석 방법	28
(가) 저자의 의미	28
(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	29
(다) 기독교론적 해석	30
(라) 역사적 문법적 해석	31
(마) 구속사적 해석	33
(바) 간단 명료성	35
제2절 칼빈의 설교 연구	36

(1) 설교의 목적과 주제	37
(2) 설교의 자료	38
(3) 설교의 구조	39
(4) 설교의 문체	40
(5) 설교의 전달방법(기술)	42
(6) 칼빈 설교의 신학적 강조점	44
제5장 설교자로서의 칼빈 연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47
제1절 연구를 통해 바라본 오늘날의 한국 교회 강단의 문제점	47
(1) 설교자의 문제	48
(2) 설교 전달과 내용의 문제	53
(3) 회중의 수용의 문제	55
제2절 설교자로서의 칼빈 연구를 통해 얻은 교훈	58
(1) 설교자에게 주는 교훈	58
(가) 뜨거운 소명 의식	58
(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	59
(다) 설교 준비와 전달에 대한 연구 자세	60
(2) 설교 내용에 있어서 주는 교훈	61
(가) 성경을 기초로 한 설교	61
(나)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통한 강해 설교	62
(다) 교리적인 내용에 중점을 둔 설교	62
(라)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설교	63
(마)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드러나는 설교	64
(3) 회중들에게 주는 교훈	65
제6장 결 론	67
제1절 요약	67
제2절 제 언	68
참 고 문 헌	7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동기와 목적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암 8:11)

한국교회는 기독교 선교 역사상 경이로운 성장을 한 교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지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지금, 기독교 백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느꼈던 감격과 새로운 다짐들은 벌써 시들기 시작하여 그 함성과 열정들을 찾기 힘들며, 오히려 교회의 무기력이 이 땅위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기라도 하듯이, 주변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의 불도 꺼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그토록 좋은 음향장치를 하고 화려한 장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설교가 너무나 무기력하다. 또한 책과 테이프와 라디오, 유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고도 어마어마한 양의 말씀이 전하여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가슴에 유창한 설교가 스며들지 못하고 있으며, 꺼져 가는 강단의 불처럼 성도들의 마음도 점차 메말라 가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영혼의 메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인 말씀을 교회들이 점차 축소시키고 그 자리에 찬양이나 영상, 강연 등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는 시도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그 주된 책임은 무엇보다도 설교자에게 있다. 목자가 양에게 꼴을 먹이는 것이 가장 주된 일인 것 같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는 것은 가장 주된 임무이며 관심사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은 많은 횃수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심방과

상담, 경조사 참석, 과도한 행정 등의 외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목사는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들고 강단에 올라가서 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함으로써 교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설교도 문제이지만, 더욱 더 큰 문제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에게 설교에 대한 올바른 모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¹⁾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올바른 모델이 없기에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가 최상의 은혜를 끼치고 있다고 믿는 착각적 자신감에 빠져 설교 갱신의 필요성마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의 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교의 갱신이 곧 교회의 갱신이기 때문이다. 제임스 데인(James Dane)은 “강단 사역이 쇠퇴하면 교회도 쇠퇴한다. 설교가 위기를 겪게 되면 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된다”²⁾고 강조하였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교회가 건강했던 모든 시대에는 설교가 가장 높은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부흥되려면 충실하고 능력 있는 성경적인 설교의 회복보다 더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의 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말씀의 사역자”로 불리 우길 원했던 칼빈의 설교를 연구함으로써 올바른 설교의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한국 개신 교회는 칼빈주의적인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 받은 교회이기에, 칼빈의 설교를 모델로 삼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될 것이다.

설교자로서의 칼빈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이를 바탕으로

1) 한국 신학교육의 요람이었던 평양신학교에서 객안련 교수가 실천신학 교수로서 설교학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신사참배의 강요를 못 이겨 36년간의 교수생활을 끝맺고 떠나자 설교학 교육의 암흑기는 도래하였다. 그 후의 설교학 교육은 학문으로서의 설교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아닌 소위 큰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학 강사로 나와서 자신들의 단순한 경험만을 토대로 하여 설교학 시간을 이끌어 갔고, 결국 신학생들은 그분들을 설교의 모델로 삼고 모방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p. 28.

2) James Dane, 『능력 있는 설교』, 송헌복·이태웅 공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0), p. 13.

로 그의 목회적 생애를 연구 하고자 하는데, 이는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귀중한 일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칼빈의 생애와 목회 속에 면면히 흐르는 그의 설교관과 설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강단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개혁자의 후예인 우리들을 통해 선포되게 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 방법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제1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방법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칼빈의 설교의 연구에 앞서 선이해로 칼빈의 생애와 설교 사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 칼빈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생애, 그리고 설교 활동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설교를 구성하는 성경, 설교자, 청중에 대한 그의 인식을 통하여 칼빈의 설교관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제4장에서는 본격적인 그의 설교를 연구함을 통하여 그의 성경 해석방법과 설교의 주요 주제들, 설교방식 등을 연구하여 한국강단에 교훈이 될 만한 설교의 모델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제5장에서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강단을 진단하고 설교자로서의 칼빈이 오늘날 한국 강단에 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6장은 결론부문으로서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제2장 칼빈의 생애와 설교 사역

칼빈은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자로 평가되지만 사실 그는 개혁을 시도할 수 완이 없었다. 칼빈이 1509년에 태어났을 때 루터(Martin Luther)는 이미 그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더욱 만족스런 해석을 얻기 위해 4년간의 영적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칼빈이 읽는 것을 배우고 있는 동안 루터는 이미 뢰텐베르크(Wittenberg)에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복음주의적 강의를 하고 있었다. 또한 칼빈이 학생이었을 때, 루터는 면죄를 해 주는 교황의 권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따지고 있었다. 이렇게 칼빈이 유년시절을 거쳐 청년에 이르기까지 루터라는 인물은 그 당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칼빈의 사역이 끝나쳐진 후, 그가 사망한 후 16년째 되는 1580년까지도 세계는 어떤 개혁자보다도 칼빈의 사상에 의해 더욱 깊은 영향을 받았다.

제1세대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죽고 난 후,³⁾ 일반적으로 그들이 시도했던 사업은 그들만큼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알려진 후계자들에 의해 계속 추구되었다.⁴⁾ 그 중에서도 칼빈은 그의 활동과 사상으로 루터 죽음 후 개혁의 기운이 거의 상실되어 가던 때에 역동적인 복음화 사역의 동기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무렵에 칼빈은 강력한 카톨릭 국가를 표방하는 당시의 조국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 때 스트라스부르그로 망명을 결심하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스위스 제네바 시에 정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⁵⁾

그런데 칼빈 당시 16세기 제네바는 오늘날의 제네바와는 달랐다. 성당을 중심

3) 루터는 츠빙글리와 외콜람파디우스가 죽은 지 15년 후, 뷰처가 죽기 5년전인 1546년에 죽었다. 박건택, 『칼빈과 설교』, (서울: 나미 출판사, 1988), p. 11.

4) 제2세대에는 취리히에서 츠빙글리의 후계자인 불링거(Bullinger)와 칼빈, 이 두 사람이 출현하였고, 그들은 각자 개혁을 주도했던 위대한 인물들만큼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Ibid., p. 12.

5) 한국칼빈학회,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p. 255.

으로 한 상류 사회를 이루고 있었을 뿐 중산층 공동체인 제네바는 몇몇 부자 상인들은 있었으나 상업에 종사하는 제후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지배권 쟁탈전이 팽배하였던 시기였다. 한편 제네바의 정치적 상황은 처음에는 종교적 논쟁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띠었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그로 인해 분명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내세워 자기 교회의 정통성을 세우고 있었다.⁶⁾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칼빈은 참 목자를 상실한 비상 상황에는 누군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개혁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 개혁의 선봉이 되었던 칼빈의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고, 주로 말씀 사역을 통한 개혁을 이루었던 제네바 시절의 설교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칼빈의 생애

프랑스어로 장 칼뱅(Jean Calvin) 혹은 장 코뱅(Jean Cauvin)이라 불리는 요한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의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 칼빈의 아버지 제라르 코뱅(Gerard Cauvin)은 집념과 야망으로 장인(匠人)과 뱃사공에서 도시민 계층으로 상승했다. 칼빈의 어머니는 지방 귀족의 딸이었는데, 칼빈을 낳고 4-5년 후 죽었으며, 아버지는 곧 재혼했다.

칼빈의 아버지는 칼빈을 어려서부터 성직자로 키우려 했다. 그래서 열두 살 때 체발하고 성직목을 받게 했다. 그러나 칼빈이 파리대학교의 몽테귀 대학⁷⁾에

6)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p. 124-126.

7) 몽테귀 대학은 정통주의의 요새들 중 하나로 간주된 곳이며, 악명도 높은 대학이긴 했지만, 16세기의 가장 저명한 인물들인 인문주의의 왕자 에라스무스, 종교개혁의 완성자 칼빈, 가톨릭 부흥 운동의 주도자 로올라를 배출한 대학이기도 하다.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문학 석사를 마쳤을 때 칼빈의 아버지는 칼빈에게 법학을 하라고 명했다.⁸⁾

칼빈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1528년-32년 오를레앙(Orleans)과 부르주(Bourges)대학교에 가서 법학 공부를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1531년 5월 26일 세상을 떠나자, 칼빈은 자기의 원대로 프랑소아 1세가 1530년 파리에 설립한 프랑스 대학에서 희랍어 공부를 계속함과 동시에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칼빈은 1532년 봄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 출판과 1534년 사이에 ‘갑작스러운 회심’(subito conversio)을 경험했다. 1557년의 『시편주석』의 서설에서 이 같은 언급을 하는데, 그 자세한 상황은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⁹⁾

칼빈은 회심 이후 1533년 10월 1일 파리대학교의 신입총장이며, 칼빈의 친구인 니콜라스 콕(Nicolas Cop)이 취임연설 연루 사건과 1534년 10월 17일-18일 플렌카드 소동(Affaire des Placards)이 일어남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조국 프랑스를 떠나게 된다.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를 거쳐 1535년 1월 스위스의 바젤(Basel)에 도착한 칼빈은 본국의 처참한 신교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동료들을 변호해야만 한다고 절감하여¹⁰⁾ 프랑소아 1세에게 서문을 붙여, 두 릴레의 집에서 쓰기 시작했던 『기독교 강요』의 탈고를 서둘러 1536년 3월에 출판하게 되었다.

그 후 평온한 가운데서 학교생활을 할 생각으로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로 가던 중에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 때문에 제네바를 거쳐 가려고 들렀다가 그곳에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파렐의 방문을 받았고 개혁하는데 도와줄 것을 간청 받았다. 칼빈은 이러한 파렐의 강권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겸양과 주저를

한국신학연구소, 1997), p. 14.

8) 칼빈의 아버지가 아들의 진로를 바꾸게 한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래 수입에 관한 생각도 했을 것이며, 노동 참사회와의 불화 때문에 아들의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Ibid., p. 15.

9) 이형기, 『세계교회사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p. 120.

10)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p. 531.

극복하고 제네바에 머물기로 하여 그 위대한 제네바시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처음에는 성경 강해자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후에는 설교자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칼빈의 일은 도전을 받았다. 특히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은 출교 처분을 내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정과 모든 시민들이 신조에 동의해야 한다는 결정은 곧 반대에 직면했고, 마침내 1538년 4월 23일 칼빈을 비롯한 제네바 목사들은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된 후 바젤로 가서 학문에만 전력을 기울이려 했으나 부처(Martin Bucer, 1491-1551)의 초청으로 스트라스부르가로 갔다. 그는 여기서 3년여(1538-1541) 머무는 동안 문법학교에서 신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목사후보생을 훈련시켰다. 이때 로마서 주석을 썼고 추기경 Sadoletto를 반박하는 글을 썼고 “성만찬에 대한 소논문”(Little Treatise on the Holy Supper of our Lord)을 썼고, 『기독교 강요』 증보판을 내었다. 또 칼빈은 목사로서 피난민교회의 500여명의 성도들을 목회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칼빈은 이텔렛분뷰렌 부인과 결혼했으나 행복한 결혼은 불과 8년 만에 끝나고 1549년 칼빈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¹¹⁾

한편 제네바는 칼빈을 추방한 후 지도력을 잃고 개혁운동은 갈팡질팡 하였다. 이때 칼빈을 반대한 친베른파가 베른파의 조약에서 제네바에 불리한 조약을 체결한 사건이 생겼으며, 이 결과 베른파는 약화되고 기욤 파렐과 칼빈을 지지하던 소위 기욤파가 점점 우세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칼빈을 다시 설득하여 제네바에 오도록 권고하였고, 칼빈은 1541년 9월 13일에 다시 제네바로 오게 되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생애가 끝나는 1564년까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교회와 국가의 건설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중심의 기독교 공동체의 건설이었다. 칼빈의 목회자요, 대설

11) 이기철, “칼빈의 생애와 그 교육연구,” 『교육논총』, 제4권 (1989), p. 96.

교가로서, 교수로서, 교회행정가로서, 성경주석가로서, 그리고 신학자로서의 삶은 실로 초인적인 것이었다. 병약한 육체를 가지고 가정적인 불행을 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권만을 위해 쏟고자 했던 칼빈의 강인한 의지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¹²⁾

칼빈의 개혁 운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1560년대에 들어와 제네바의 정치는 안정되어 갔다. 그러나 칼빈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그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작 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1564년 5월 27일 55세를 일기로 안식에 들어갔다.

칼빈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저작과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유학생들을 통해 그의 사상과 정신은 전 유럽으로 확산¹³⁾되었다.

제2절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설교 사역

칼빈이 설교자로서 활동한 것은 스트라스부르그에서의 3년간과 다시 제네바에 돌아와서 약 20여 년간이었다.¹⁴⁾

이곳 제네바에서 칼빈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역에 의해 제네바 교회 정치를 새롭게 하려고 하였다.¹⁵⁾ 또한 칼빈은 하나님이 교회를 형성하고 건설하고 통치하시는 것은 복음을 설교함으로써 가능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1세기의 예루살렘이나 갈라디아에서 마찬가지로 16세기의 제네바에서도 사실이었다.¹⁶⁾ 그러므로 제네바교회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 되는 직분은 하나님 말씀

12) Ibid., p. 97.

13) 직접 칼빈의 영향을 받은 개혁자요 설교의 거성으로는 베자, 나스 등이 있지만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이르도록 그의 설교의 힘은 모든 설교자들에게 더욱 넓게 파급되어 가고 있다.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1), p. 210.

14) 1541년부터 1564년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칼빈의 설교 활동은 활발했다. 정성구, “칼빈주의와 설교,” 『신학지남』, 제44호 (1977. 9), p. 70-75.

15) 이러한 말씀의 사역에 의해 된 교회정치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임명된 것이다. T. H. L. Parker, *Portrait of Calvi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p. 78-79.

을 선포하는 일이었다. 칼빈은 수세기 동안 쌓아온 장벽을 무너뜨리고, 성경의 성구가 오래 전 1세기의 청중들에게 참신하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16세기 제네바 교회의 청중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하였던 것이다.

칼빈의 설교 사역에 대한 진면목은 그가 매일 설교했던 성 피에르(St. Pierre) 교회의 강단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매일 1회 이상 강단에 모습을 드러내었고, 이를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쳤다. 신구약을 거의 전부 주석한 것과 또 기독교 역사상 불멸의 명저(名著)인 『기독교 강요』를 쓴 저력이 그의 설교의 바탕을 이루었고, 많은 서신들을 통해 확충된 말씀의 내용들이 강단에서 외쳐졌던 것이다.¹⁷⁾ 그리고 교인들을 직접 가르치고 돌아보는 교육자요 목회자로서의 직무 속에서 칼빈은 항상 경건한 삶의 모습을 확립시켜 나갔으며, 그것을 설교로 이루어 냈다. 이렇듯 그가 목회에서 보여준 제반 활동¹⁸⁾은 설교를 둘러싸고 있는 설교를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곧 칼빈의 목회의 중점은 항상 말씀의 선포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칼빈은 현실감각이 예민하여 그의 설교 속에는 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러한 현실 비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도들의 생활에 대한 권징이었다. 칼빈은 말씀을 통해서 신도들이 실제적으로 새롭게 된다고 믿었기에 설교할 때마다 반드시 성경본문의 뜻을 밝히고 생활개선에 대한 설교, 폐품을 개량하는 설교 등 그 당시의 실제 생활에 맞는 설교를 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칼빈의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거나 즐거움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설교에 펍 냉담하고 무관심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난과 더불어 제네바에서 칼빈의 설교에 대한 감격이 적어지자, 그는 하나님이 허락만 한다면 죽고 싶다고 탄식했다.¹⁹⁾ 그러나 칼빈은 끝내 낙심치 않았고, 기침과 신병의 고통을 당하면

16) Ibid., p. 80.

17) 제네바 교회 사업의 중심적이고 폭발적인 요지는 규칙적이고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칼빈의 설교였다. Ibid., 81.

18)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설계자이고 지도자적 목회자로서, 교회생활과 조직에 주요 책임을 다하였고 실제 목회에도 능동적으로 임했다.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p. 204-205.

서 설교에 전력을 다함으로 타락한 제네바시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칼빈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의 생애와 그의 전 인생의 1/3이상을 보낸 제네바 시절의 설교 사역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렇다면 칼빈의 이러한 생애와 설교사역의 배경 속에 그의 설교관과 설교 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개괄적인 칼빈의 생애와 설교 사역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여, 설교를 구성하는 성경과 설교자와 회중에 대한 그의 인식을 통하여 칼빈의 설교관을 논하고자 한다.

19) 정성구, “칼빈주의와 설교,” p. 84.

제3장 칼빈의 설교관

설교 사역이란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사명보다도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²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회중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설교 전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제네바에서 이와 같은 귀중한 임무를 맡은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칼빈의 설교관을 연구하는 것은 그의 전반적인 설교 사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칼빈의 설교관을 이해하기 위해 설교를 구성하는 성경과, 설교자, 그리고 회중에 대한 그의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성경에 대한 인식

(1) 성경의 필요성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다루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칼빈은 이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은 인간의 정신 속에 심어져 있어서 사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피조물이며 아무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깊은 곳에 하나님 의식을 심어 주셨다고 설명한다. 이 의식을 하나님 의식 또는 종교의 씨앗 그리고 양심이라 부른다고 말한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결코 뿌리가 근절될 수 없다고 말한다.²¹⁾ 칼빈은 하나님께서 모

20) D. M. Lloyd Jones, 『목사와 설교』,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9), p. 11.

든 사람 안에 자신에 관한 본유적 혹은 고유적 의식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역시 외부적 세계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을 전 우주에서 수없이 많은 증거들과 명백한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들을 보여주신 창조주로 본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성(聖)의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데 그 기능을 다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타락이 없었다면 자신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통하여 인간은 아마 창조주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것은 결코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보다 더 좋은 도움에 의하여 보완되고 명료하게 되었으며, 그 도움은 바로 성경에서 보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친히 주신 말씀처럼 받아야 한다고 칼빈은 말한다.²¹⁾

칼빈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일반계시를 정정하고 해석해 주며 따라서 일반계시가 인간의 죄 때문에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반 계시를 통한 모습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가 유익한 교훈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의 도움을 마련하셨던 것이 명백하다고 칼빈은 말한다.²²⁾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도움, 즉 성경을 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한다.²⁴⁾ 즉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 우둔함을 쫓아 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훈하

21)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 문화사, 1993), p. 36.

22)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8), p. 16.

23) 신복윤, op. cit., p. 38.

24) John Murray,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85), p. 27.

시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거룩하신 입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위하여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일반적인 증거 외에 자신의 말씀을 첨가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확실한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자신의 특별게시의 문서이다. 계시의 성문화의 필요성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멀어진 데서 기인한다. 우리는 특별게시, 즉 성문화된 대로의 성경을 치유로써가 아니라 일반게시에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둔해진 인간에게 조력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²⁵⁾

칼빈은 성경의 중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하나는 구원 받게 하는 수단이요, 또 하나는 진리의 기준이라 말한다. 인간은 성경을 통해 원죄, 죽음, 심판, 지옥, 사단을 배우게 되며 죄인이 구원 받아 하나님께 가는 길은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에 없음을 알게 된다. 즉 창조, 타락, 구속의 길을 깨닫는 것이라 말한다. 인간은 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신학이 바로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판단하게 되며, 이단과 정통을 구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다 더 좋은 도움으로 주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다.²⁶⁾

(2) 성경의 영감

칼빈은 영감이란 성령께서 신구약성경 저자들에게 행사하신 결정적인 감화를 의미하며 이 감화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정확하고 진정한 방법으로 선포하며 기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의미

25) 신복윤, op. cit., p. 39.

26) 박해경, op. cit., p. 17.

에서 성경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그들의 저술한 성경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종교와 다른 종교들을 구별해주는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도구로써 하늘로부터 명령되어진 것들을 말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설명한다.²⁷⁾

이와 같이 칼빈은 성경의 저자에 대하여 인간보다는 성령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칼빈은 누구든지 성경에서 도움을 얻고자하면 먼저 성경은 인간의 뜻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동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칼빈은 영감의 결과가 마치 구술에 의한 것처럼 인간적인 모든 요소와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칼빈은 성경이 인간에 의해 기록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확실한 필기자이며 그들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된 증거로 남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성령의 기구, 혹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며 그들의 문체는 성령의 문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임명된 성경저자들은 하나님의 조명에 의하여 그들의 자연적 정신 기능의 활동이 증진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계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 계시를 더욱 충실히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구인 인간은 인간인지라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한다.²⁸⁾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인간은 도구일 뿐 성령에 의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원본에서 오류 없는 문서라고 주장한다.²⁹⁾ 하나님과 성령은 오류가 없으시며 성령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잘 섬기도록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

27) John Murray, *op. cit.*, p. 28.

28) Joseph Haroutunain, 『칼빈 주석의 정수』,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 31.

29) 신복윤, *op. cit.*, p. 41.

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로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성경을 어디서나 인간의 말로 인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인용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비난하지 않고 공손하며 온순한 마음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⁰⁾

칼빈은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며, 여기서는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동시에,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되어진 것은 무엇이나 배워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것을 성경이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이는 곧 성령을 훼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나 경건의 진보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한다.³¹⁾

성령은 성경저자에게 그의 영감의 덕을 부여함으로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책임지는 분이다.³²⁾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접하는 자에게 또한 성령의 덕을 부여주실 것이다. 그 덕에 의해 칼빈은 성경본문을 다루는데도 놀랍도록 자유로웠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감된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즉 그리스도를 제시함에 있어서 능력을 가진 책이라는 것을 그는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영감론을 이용하여 로마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칼빈은 성경은 교황제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인간의 말과는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교황이나 로마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선지자들은 그릇될 수도 없었고 또 그릇된 적도 없었다. 따라서 칼빈은 교부들이나 교회회의 또는 일반전통이 성경과 배치될 때는 성경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그릇된 것이라 주장한다.

성령은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만을 해석해 주고 깨우쳐 주기

30) Ibid., p. 40.

31) John Murray, op. cit., p. 30.

32) 박선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칼빈의 성경관”, 『교회와 신학』, 제4권 (1971), p. 171.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칼빈은 성령의 직접계시를 의지한다는 구실아래 성경을 무시하는 열광주의자들에 대하여 공격하였다. 참된 성령은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그가 이미 구두로 전달한 것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그의 주권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경에 복종하도록 성령은 성경을 선택했다³³⁾고 말하므로 성경 안에 있을 때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설명하고 있다.

(3) 성경의 권위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알게 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임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칼빈은 성경은 자연이나 이성보다도 월등한 조력자이지만, 성경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은 그것을 권위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데, 이 받아들임의 행위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성의 힘도 교회의 소리도 성경의 진리를 증명할 수 없다. 교회의 소리가 불충분한 이유는 교회 자체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정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그리고 어떤 신탁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약되어 인정을 받을 때에는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상식과 육감을 결여하고 있지 않는 한 말씀하신 자를 불신할 만큼 뻔뻔스러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영구히 기억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기뻐하신 수단으로 성경책만을 준귀케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갖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성경이 하늘로부터 발생된 것임을 확신하는 데서만 그 권위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³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기 전에는 성경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확신 시켜준다고 주장한다.

33) Ibid., p. 175.

34)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한국문서 선교회, 1993), p. 37.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저작임을 자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성경이 자증한다는 말은, 성경이 본래적으로 자체의 신적 기원, 신적 성격 및 신적 권위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대하여 말할 때 성령과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결시킨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며 앞으로도 성령은 계속 그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자증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소생시키는 말씀으로서의 근거를 세운다고 주장한다.³⁵⁾

또한 칼빈은 성경을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며 침해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한다. 칼빈은 그러한 성경이 교회의 일반 동의로 해서 얻어진 권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고한다. 그들은 과연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안전하며 타락하지 않을 것인가, 한 권의 책만 존중되어야 하고 다른 책은 아닌가 등의 질문에 대해 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을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거나 성경의 확실성은 교회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은 거짓된 책략이라고 경고한다.³⁶⁾ 성경은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저술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축자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처럼 성경의 고유한 신적 권위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³⁷⁾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은 신앙의 표준을 자기감정에다 두려고 하며,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에다 두려고 한다. 전자는 무식한 사람들 중에 많고 후자는 유식한 사람들 중에 많다. 칼빈은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기독교의 권위를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이와 같이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확신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35) 신복윤, *op. cit.*, p. 46.

36) Samuel Dunn, 『요한 칼빈의 신학진수』, 김득용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p. 14-15.

37) 신복윤, *op. cit.*, p. 47.

38)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 엠마오, 1987), p. 29.

권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신적 저작권 문제는 자연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자연적 증명은 신앙을 위한 초자연적 기초대신 자연적 기초를 마련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헛되거나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불변의 지혜의 기록들은 꾸준히 개인적으로 공부해 나가면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와 섭리자께서 사람과 담화하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성령의 내적 증거

칼빈은 기독교 신앙의 인식론은 중세교회의 권위적 전통이나 재세례파의 영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참된 신앙은 인간의 마음에서 성경 진리를 입증하시는 성령의 증거라고 보았다. 그리고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표현하였다. 칼빈은 이러한 입장을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였으며, 그 후 계속해서 주석과 설교에서도 설명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사용한 이 표현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적 구조의 표준이 되었다.

칼빈이 주장하는 성령의 증거란 도대체 무엇인가? 칼빈은 계시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신빙성 문제에 더 비중을 둔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로마교회가 오직 교회만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로마교회와 논쟁 상태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었다.³⁹⁾

칼빈이 참 신앙 혹은 구원하는 신앙을 영혼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밀한 내적 또는 내부적 행위라고 말하고 성령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성경의 진정한 특성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칼

39) 신복윤, *op. cit.*, p. 48.

빈은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낳게 하는 성령의 내적 가르침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향해 자증하게 되는 것이라 한다.

또한 이것을 가리켜 성경의 은밀한 증거라고도 한다. 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이론을 훨씬 능가하며,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정확히 말해서 영혼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밀한 내적 사역으로 생기는 것은 새로운 영적 자각인데, 이 자각으로 인해서 신적 저작임을 직관적 확신에 의해서 아는 것처럼 이해하게 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이론이나 증명, 또는 인간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결론은 어떠한 것도 명료성에서나 그 효과에서 그러한 확신과는 비교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유일한 참된 해석자라는 칼빈의 견해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인간적인 측면을 결코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분명하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도구임을 주장한다.⁴⁰⁾ 성경에 대한 주요한 증거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얻어진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들 자신의 예리한 영적 눈, 또는 사람들의 신임과 같은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이성에 입각하여 증거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며 그 이름에 전 세계가 순종하도록 한다고 말하므로 성경 저자의 역할을 최소화하려 한다.⁴¹⁾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직관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판단을 초월하는 확실성에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설명한다. 칼빈은 아주 명백하게 이 직각적 확신을 다음과 같이 생생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 이론도 필요로 하지 않는 확신이다. 곧 이것은 최고 이성으로 말미암아 입증된 지식이며, 실로 이 지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론에서 보다 안심하고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계시가 아니면 만들어 낼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하다고 말한다.⁴²⁾

40) 한국칼빈학회,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p. 97.

41) Samuel Dunn, op. cit., p. 15.

이 확신의 상태는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각에 의해서 얻게 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지식, 즉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이성에 의해서 도달할 수 없는 확신인 최고의 이성과 일치한 직각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로서만 주어지는 의식이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의 창조적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심어지고 그 판단도 역시 직접적이며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즉 영적 인간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칼빈의 유명한 성령의 증거 교리이다.

제2절 설교자에 대한 인식

칼빈은 말씀의 증거자를 “하나님의 위탁을 받고 보냄을 받은 대사(Ambasader)로서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소유한 사람”⁴³⁾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권위와 함께 설교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칼빈은 설교는 하나님이 예배의 현장에 임재 하시어 그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이 성취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칼빈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설교자를 매개체로 하여 그가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며, 이 사역을 통하여 말씀의 선포 사역을 계속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란 먼저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성경의 진리를 소개할 수 있을 정도는 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42) 신복윤, op. cit., p. 50.

4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abridged ed.,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IV, 2:7. 이후로는 ICR로 표기. 칼빈은 설교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아니며, 단지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절이다.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p. 186.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라 할지라도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신의 사상을 선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칼빈은 설교자는 항상 육신이 되신 말씀의 존재와 사역을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해석과정에서 설교자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준비되는 일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⁴⁾ 칼빈은 “만일 설교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인물이 되는 수고를 치르지 않는다면 설교단에 올라갈 때 그의 목을 부러뜨리는 편이 나올 것이다”⁴⁵⁾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칼빈은 설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결코 강단에서 논해져서는 안 되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칼빈 설교의 주된 원리이다.

한편 하나님께서 인류를 돋보이게 하는 많은 고상한 재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인간들의 입과 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많은 숭고한 은사들 중에서 독특한 특권은 그가 사람들의 입과 혀를 자신을 위해 성별하고 그것들 안에서 그 자신의 음성이 울리게 한 것이다”⁴⁶⁾라고 하였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말씀을 사도들이 충실하게 전파할 때 그들의 입이 자기 입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입술이 자기 입술로 간주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역이 오늘날은 목사들에게 위임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대변자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발표하지 않고, 그렇게 할 사람을 부르도록 명령하신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⁴⁷⁾라고 말함으로써, 누구나 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설교자라는 직분이야말로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칼빈은 자신을 교인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으며, 따

44) Clyde E. Fant,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Waco, Texas: Word Book, Publisher, 1971), p. 144.

45)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p. 195.

46) ICR, IV, 1:5.

47) ICR, IV, 3:3.

라서 그는 자신을 교인들의 주인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는 청중들에게 가르치려고 말하기 전에 우선 그 가르침을 자기 자신에게 깊이 새기도록 하였던 것이다. 칼빈이 종종 그의 설교에서 ‘우리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⁴⁸⁾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을 청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그의 설교의 모든 권위와 근거를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는데 있음을 확신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를 설교하도록 부르셨으며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전하라고 명령한 것만 설교한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설교자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요구들을 만나게 된다고 칼빈은 말한다, “설교자는 건전한 교리와 거룩한 생활이 요구되어진다. 그런데 어떤 명백한 악덕을 따른 자는 그의 권위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된다”⁴⁹⁾고 칼빈은 경고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칼빈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건전한 학문적인 배경을 갖추어야 하며, 설교자로서의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3절 회중에 대한 인식

칼빈은 설교자의 의무에 대하여 언급한 것만큼이나 회중⁵⁰⁾의 의무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그는 회중의 의무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그들이 어떤 정신

48) Harold Dekker, *John Calvin: Sermons From Job* (Grand Rapids, Michian: Baker Book House, 1979), p. 13.

49) ICR, IV, 3:12.

50) 거대한 성비엘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원을 이루었으나 그것은 반드시 설교자가 유명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제네바에는 예배에 결석하면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설교에 흥미가 없는 사람도 있었고, 미사의 다채로움을 보려고 온 자도 있었다. 그 청중의 대부분은 경건한 제네바 주민이었고,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등지로부터 온 피난민들, 이태리 귀족들로서 하나님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기 위해 가정과 재산과 명예를 버리고 제네바로 찾아온 자들이 섞여 있었다.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p. 172-179.

자세로 설교를 들으러 와야 하는가, 그리고 설교를 듣는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늘 가르쳤다. 칼빈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회중도 설교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해야 하며, 단지 묵인하는 태도로 설교를 듣지 않고, 설교야말로 그들의 삶의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여겨서 갈망해야 하며, 설교자만큼이나 회중도 능동적으로 설교의 한 몫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⁵¹⁾

그래서 그는 설교 시에 어린애들의 울음소리는 주위를 산란케 한다고 책망했으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문 밖을 지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또한 들어온 자라도 잠에 빠져 조는 사람과 깨어 있어도 설교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자들은 엄히 책망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가끔 실망하기도 했다.⁵²⁾

한편 회중들은 설교자가 성경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야하고 성경의 교리에 의해 그의 생각을 비판해야 하듯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⁵³⁾ 그런데 여기서 회중들이 설교를 판단해야 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다. 비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되어야 하고 성경적인 모든 것은 겸손한 순종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혹으로부터 나온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아무것도 우리 보다 낫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의 말씀의 사신에게 순종을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가장 잘 입증하는 것이다.⁵⁴⁾

51) Ibid. p. 61.

52) 정성구, “칼빈주의와 설교,” p. 84-85.

53)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회중들의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순종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54) ICR, IV, 3:1.

위의 칼빈의 말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들이 입으로 말하는 사건을 통하여 굴절되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중들은 설교자들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그의 사도행전 8장 31절의 주석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경멸하여 그들이 쓴 강해를 읽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⁵⁵⁾ 그런데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여야 할 순종은 그의 위대하심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촉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신앙의 순종에 의해서도 촉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과 그 복음이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회중은 말씀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적합한 증인이듯이 그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기 전에는 인간들의 마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한 바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들이 신실하게 선포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⁵⁶⁾

칼빈의 말에 의하면 진정한 하나님 말씀과 거짓된 말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도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 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여 주고 있

55)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edited by David W. Torrance, Thomas F. Torrance,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3. Acts 8:31. 이후로는 Comm으로 표기.

56) ICR, I, 7:4.

다. 그러므로 회중들은 교회에 참석하기 전이나 교회에 왔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될 것을 기도해야 하며, 겸손과 믿음과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

제4장 칼빈의 성경해석과 설교 연구

이제까지 설교자로서의 칼빈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칼빈의 시대적 배경과 생애, 그리고 칼빈의 설교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설교자로서의 칼빈을 알아보기 위해 그가 행했던 성경 해석 방법과 설교들의 형식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1절 칼빈의 성경 해석

(1) 칼빈의 해석에 있어서 전제들

칼빈에게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본질 문제가 성경 해석에 우선한다. 칼빈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를 바로 인정하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본질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칼빈은 성경의 이중저작성(dual authorship of the Scripture)을 주장한다. 성경은 그 저작성에 있어서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성령의 도구인 선지자를 통해서 왔으며,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받아쓴 것이며, 결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칼빈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은 사람이 쓴 것임에 틀림없다. 칼빈은 성경의 영감은 인간 저자의 개성을 무시하고 일어나지 않으며 인간 저자의 개성이나 스타일이 성경에 남아 있다고 믿었다.⁵⁷⁾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인간 저자가 의도하는 바와 성령이 의도하는 바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⁵⁸⁾ 성경의 신적 기원과 성경의 영감 그 자체에 성경의 신적 권위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57) David L. Pucket, *John Calvin's Exegesis of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p. 29.

58) Ibid.

칼빈은 성경의 권위란 하나님 자신이 성경으로부터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있다고 말한다.⁵⁹⁾

칼빈은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에 의한 은혜를 통해서 조명될 때만이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말씀에 대한 가장 적합한 증거자가 될 수 있으며, 해석자가 될 수 있다.⁶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확실한 내적 증거를 통해서만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해석, 강론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칼빈의 신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로는 칼빈의 마지막 주석 에스겔서 2:1, 2을 들 수 있다. 에스겔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칼빈은 에스겔이 말씀은 들었으나 성령이 그의 발에 힘을 주기까지는 그가 일어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소리”(sound of the Word)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면서 역사하시는 성령(the concealed working of Holy Spirit)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⁶¹⁾ 이와 같은 이유로 칼빈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과 차별되는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연합을 주장했다.⁶²⁾ 이러한 그의 특별한 견해가 그의 성경 해석 원리의 전제가 되고 있었다.

칼빈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또 다른 점은 성경의 통일성이다.

59) ICR, II, 2:2.

60) ICR, I, 7:4.

61) 손석태, “칼빈의 성경 해석,” 『칼빈과 개혁신학』, (1999), p. 44.

62) 로마 가톨릭은 교회에서는 성령을 말씀과 성례에 가두고, 아나뱃티스트(Anabaptists)는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칼빈은 이 둘이 다 한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루터는 성경과 개인적인 경험이나 영감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했었다. 따라서 그는 “말씀과 영”(The Word and the Spirit)이라는 공식을 사용하였다. Ibid., p. 44-45.

칼빈은 “모든 족장들과 맺은 계약은 그 본질과 실재(substantia et re ipsa)에 있어서 우리와 같아서 실제로 둘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unum prorsus et idem)”⁶³⁾라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이며, 그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이다. 이와 같이 칼빈의 모든 성경 해석의 원리는 신구약의 통일성과 연속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2) 칼빈의 성경 해석 방법

(가) 저자의 의미

칼빈의 성경 해석 첫 번째 방법은 저자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첫 주석 로마서를 1539년에 완성하고 1540년에 출판하며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 모두는 간단명료한 것이 주석가의 특별한 미덕이라고 여겼 습니다(Both of us felt that lucid brevity constituted the particular virtue of an interpreter). 주석가가 주해하기 시작한 그 저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to unfold the mind of the writer whom he has undertaken to expound), 그의 유일한 과업이기 때문에 만일 그가 그의 독자들을 저자의 뜻하는 바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는 그의 표적을 놓친 것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 길을 잃은 것이 됩니다”⁶⁴⁾

여기서 칼빈은 해석자가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해석자의 임무요 목적 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항상 저자를 언급하고 저자 가 성경의 이야기나 논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밝힌다. “Moses confirms…”(창 37:1), “Before Moses proceeds in…”(창 38:1) 등이 그 대표적인

63) ICR, II, 10:2.

64) comm. Romans, p. 21.

예이다.⁶⁵⁾ 칼빈은 레 11:13을 해석하며 해석은 항상 하나님의 의도(Dei Consilium)를 고려해야 하며, 해석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나는 성령은 여기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단 12:4), 혹은 “우리는 다같이 하나님의 참다운 의미(genuina Dei sententia)에 만족하자.”(민 14:11) 등의 말을 쓰고 있다.⁶⁶⁾ 그렇다고 해서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의 의도하는 바와 인간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성령이 의도하는 의미가 바로 인간 저자가 의도하는 바이었다.⁶⁷⁾

(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

칼빈의 성경 해석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Scripture interpretes Scripture)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문자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언이나 비유, 혹은 은유, 모형이나 실형 등의 해석에 있어서 확고한 그의 해석 철학을 표명하는 말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불분명하거나 어려운 성경 구절은 명료하고 쉬운 성경 구절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이 신약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내적인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신약 성경이 구약성경 해석의 가장 신뢰할만한 길잡이라고 말한다.⁶⁸⁾ 칼빈은 롬 1:2-3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약속하셨다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요 8:56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고전 10:3-4에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신약 시대의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영의 양식을 먹고, 같은 영의 음료를 마셨으며, 또한 마 22:23-32와

65) 손석태, op. cit., p. 46.

66) Ibid., p. 47.

67) David L. Pucket, op. cit., p. 37.

68) John Cavin, 『칼빈의 십계명 설교』, Benjamin Farldy 편역,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1), p. 89.

눅 20:27-38은 모세가 죽은 자의 부활을 증언했으며, 히 11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만 이 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믿었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그래서 칼빈은 그와 구약의 성도들은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고 주장한다.⁶⁹⁾ 칼빈에게는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성경해석자(certissimus interpres)이며,⁷⁰⁾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해석자를 구해서는 안된다”⁷¹⁾고 말했다.

(다) 기독교적 해석

세 번째는 기독교적 해석이다. 칼빈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로부터 벗어나서 일생을 노력하고 연구한다 해도 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⁷²⁾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골 2:3). 성경의 해석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려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칼빈은 시편에서 다윗과 그의 왕국을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다윗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하와 높아지심 사이에 병행점을 찾으려 한다. 칼빈은 시편 109편 주석의 서론에서 “비록 다윗이 여기서 그가 당한 부상을 불평하고 있지만 그림에도 그는 모형적인 인물이므로 이 시에 표현된 모든 것은 교회의 머리

69) Ibid.

70) comm. Exodus 22:20.

71) comm. Malachi 3:1.

72) ICR, I, 4:12.

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성경에서 칼빈은 다윗적이며 메시아적 요소를 발견할 때면 예외 없이 그것을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했다. 칼빈은 일관성 있게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으려고 노력했던 해석자였다.

(라) 역사적 문법적 해석

Kemper Fullerton은 그의 저서 『예언과 권위』 (*Prophecy and Authority*)에서 칼빈의 성경 해석 방법은 역사적 문법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여기서 역사적이라는 말은 성경 콘텍스트의 역사적인 상황을 중요시하는 의미를 말하며 문법적이라는 말은 성경의 문법적인 구조와 언어를 중요시하는 의미를 말한다. 그러면서 칼빈은 신학적인 전제와 석의적인 방법의 조화가 아니라 석의적인 방법이 신학적인 전제를 컨트롤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전제가 성경 해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문법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주도한다는 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루터와 다르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신학적인 전제가 성경 해석의 방법을 인도하는 원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성경을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방법을 컨트롤하는 것은 신학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위적으로 루터처럼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를 찾는 것은 아니다. 환언하면 칼빈은 구약을 해석할 때 모형론적으로 해석하지만 루터처럼 역사적 문법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해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창세기 3:15에서 여자의 씨는 루터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칼빈은 여자의 씨는 삼인칭 여성 단수이지만 집단 명사로써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칼빈에 의하면 집단적 단수 명사가 한 사람만을 가르치지 않는다. 때문에 직접 여자의 씨를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다. 교회사를 보면 본문은 Protoevangelium(원시복음)이라고 해석한 것이 통례이다. 칼빈은 이들의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사탄과 인간 사이의 계속적인 갈등이 있을 것이며 결국은 인류가 승리

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다고 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오심을 말한 것이지 직접 여자의 씨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본문의 문맥을 왜곡시키는 것이다.”⁷³⁾

여기서 우리가 칼빈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칼빈은 얼마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의 역사적 문법적인 방법에 투철하였으며 동시에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신학적인 전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배울 수 있다. 칼빈에 의하면 루터처럼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지나친 예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은 구약의 역사적인 의미를 약화시킨다. 구약의 메시지는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과 희망을 주며 동시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미리 맛을 보게 하는 것이다.⁷⁴⁾

칼빈은 성경에 알레고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알레고리를 알렉산드리아 학파처럼 역사적인 콘텍스트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그 알레고리에서 문자적인 의미, 즉 성경의 자연스럽고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려고 했다. 칼빈은 고후 3:6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의 주석에서 알레고리의 부당성을 말한다. 풍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자에게 의문은 성경의 문법적 문자적인 의미를 말하며 영은 알레고리칼 의미를 말했다. 따라서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는 의문과 같으며 알레고리칼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봤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본문은 오리겐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본문의 의미가 왜곡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불순하게 하며(*germanum scripturae sensum adulterandi*) 알레고리칼 해석을 성경 해석의 규범으로 만들게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주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입으로만 전하면 그것은 죽게 하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전하면 생명을 준다”⁷⁵⁾는 말이라고 주석했다.

73) comm. Genesis 3:15.

74) comm. Isaiah 45:1.

75) comm. 2Corinthians 3:6.

따라서 칼빈은 고후 3:6은 성경의 해석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알레고리를 해석하는 키를 제시했다고 봤다 (Paul here furnishes us with a key for expounding Scripture by allegories).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칼빈은 알레고리칼 해석과 알레고리를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칼빈은 요한복음 1:1-5에 대한 설교에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의 언어가 어떻게 문장에서 사용되는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For it is important to know how Holy Scripture uses words, Surely we need not stop simply at words, but we cannot understand the teaching of God unless we know what procedure, style and language he uses).⁷⁶⁾ 여기서 성경 언어의 사촌은 문맥과 문법적인 구조를 살피는 것이며 언어의 스타일이라는 말은 성경의 장르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성경의 장르와 언어의 사용을 보는 것은 성경의 자연스럽고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현대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은 아주 중요하다. 칼빈이야말로 현대 성경 해석학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마) 구속사적 해석

칼빈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본문의 흐름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맥락에 대한 의식은 비단 성경의 문법적인 혹은 문학적인 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어떤 사건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역사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예리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파헤치려고 한 것이다. 현재 우리들이 쓰는 말로 구속사적인 면에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다. 예를 들면 창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76) John Calvin, *The Deity of Christ and Other Sermons*, (Trans. Laory Nixonp,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Michigan, 1950), p. 13.

모세는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유다의 족보를 삽입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구속주가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을 바로 이 지파에서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파의 지속적인 역사는 잃어버리지 않고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고상함은 여기에서 추앙되고 있지 않고 가족의 가장 치욕스러운 면만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유다 자손들의 마음을 부풀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 한 점들이다. 이제 얼핏 보기에 그리스도의 위엄은 그러한 불명예로 실추된 것같이 보이지만 바울이 말한대로 그리스도의 “비하”(emptying)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의 영광이 실추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⁷⁷⁾

칼빈은 여기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곧 아브람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놓치지 않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 12:3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여기서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하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 약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에 보다 분명히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22:18). 그리고 바울의 권위가 나를 이 점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 곧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보다 430년 전에(갈 3:17) 주어진 것이다. 년 수의 계산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복은 그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약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판단으

77) Comm. Genesis 38:1.

로는 모든 나라가 그의 종 아브람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허리에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아브라함은 모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조가 이해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후 우리는 모두 저주 가운데 태어났지만 여기서 새로운 치료가 우리에게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⁷⁸⁾

이 유다의 이야기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에서 또다시 아브라함과 유다의 후손, 다윗과 그리스도의 연관성속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칼빈은 그의 해석에 있어서 항상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본문이나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을 구속사적인 면에서 조명하고 해석하려는 점은 칼빈에게 있어서 너무나 집요하고 일관성 있는 점이다. 칼빈이 이처럼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신구약을 통해서 흐르는 계약사상을 전제로 한 것임에 틀림없다. 칼빈에게 있어서 계약사상은 그의 구속사적 해석의 기초가 되고 있다.

(바) 간단 명료성(Brevitas et Facilitas)

많은 학자들은 칼빈의 해석 방법의 특이성을 “간단 명료성”(Brevitas et Facilitas)에 있다고 한다. 리차드 겐블(Richard Gamble)에 의하면 칼빈의 이러한 간단 명료성은 칼빈의 가장 두드러진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말한다(the hallmarks of Calvin's exegetical methodology). 그리하여 아무리 우둔한 학생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썼다는 것이다.⁷⁹⁾ Gamble은 이러한 칼빈의 방법

78) comm. Genesis 12:3.

79) Richard Gamble, "Brevitas et Facilitas: Toward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47 (1985). p. 3.

에 대해서 Seneca's De Clementia의 주석과 성경 주석을 비교하면서 칼빈에게
 는 이 둘 사이에 방법론적인 불연속점이 있다고 말한다. 칼빈에게는 그가 받은
 교육대로 성경 주석에 인문주의적인 전통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별히
 critical apparatus의 경우에는 인문주의자들의 방법을 따르고 있음을 칼빈 자신
 이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학적 문체(Rhetorical Style)에 있어서 칼빈의 두
 주석은 차이가 있는데, 바로 성경 주석이 간단명료하다는 것이다. Gamble은 이
 “간단 명료성”을 성경 수사학(Biblical Rhetoric)이라고 말하고 칼빈은 이것을 바
 로 성경에서 배우고 모방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해석학의 궁극적인 전제는 성경의 명확한 간결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
 미에 있어서 간결하다. 해석의 다양성이 없다. 그 의미에 있어서 간결하고 분명
 하다. 따라서 다양성을 가진 어휘의 문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인
 간 저자를 칭송할 뿐이다. 본 저자가 내리려는 결론은 칼빈의 해석 방법은 성경
 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다.”⁸⁰⁾ 물론 칼빈의 이러한 방법은 많은
 목회자나 신학도들이 그의 책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회자
 적인 배려에서 나왔으리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제2절 칼빈의 설교 연구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할 때 인간을 통해 친히 말씀한다고 한다. 하
 나님은 하늘로부터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참으로 어떤 종류의 도구 없이 스스로 혹은 천사들을 통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들을 통해 하기를 더 좋아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그 이유들을 칼
 빈은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용
 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존중을 선포한 것이고, 둘째로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80) Ibid., p. 15.

말씀을 선포한 것은 듣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 유대 속에 있을 때 상호 사랑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⁸¹⁾

칼빈은 이와 같은 이유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칼빈이 복음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기초 배경이 된 그의 설교의 목적과 주제, 그가 사용하였던 설교의 자료 및 구조와 문체, 그리고 그의 설교의 전달방법, 설교에 있어서의 신학적 강조점 등을 통하여 칼빈의 설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설교의 목적과 주제

칼빈은 설교를 통하여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성경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곳임을 말했고, 이러한 설교에서 청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⁸²⁾ 이렇게 칼빈은 기독교 신앙을 선포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는 교리적인 설교⁸³⁾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회중들의 처지와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는 치유적인 설교도 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칼빈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르쳤는데, 이와 같은 가르침의 배경에는 당시 제네바시의 개혁, 특히 교권의 개혁을 위한 간접적인 시도가 내포되어 있었다.⁸⁴⁾ 칼빈은 이러한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칼빈의 설교주제는 한마디로 성경에 관한 주제이다. 그 당시 칼빈의 설교는 하나님의 위엄성이나 예정설이나 신의 섭리나 교회 규율에 관한 엄격하고

81) ICR, IV, 3:1.

82) ICR, IV, 1:5.

83) 흔히 생각하기를 칼빈은 신중한 성격을 지닌 학자였기 때문에 정교하게 다듬은 원고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읽어 내리는 교리적 설교가 많았을 것으로 여기지만, 그의 설교는 결코 그러한 데만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p. 210-211.

84) 정성구, “칼빈의 설교연구(1),” 『신학지남』, 제46호 (1979. 3), p. 54.

논리적인 강의는 아니었다. 또한 영주나 교권 남용하는 가톨릭교도나 우둔한 신학적인 적수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만도 아니었다. 사실 이런 요소들이 칼빈의 설교에서 발견될 수는 있으나 엄격히 말해서 그것들이 설교의 주제가 되지는 아니했다. 본문이 읊기에서 따 온 것이면 그 구절을 설명하고 실제로 적용시키고 에베소서에서 따온 것이면 또 그렇게 했다. 칼빈은 오늘날 유행하는 방법처럼 성경에서 한 구절을 따내 그것을 읽고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식으로 성경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칼빈의 주석에서처럼 그는 설교에서도 본문에 철저히 복종의 태도를 취하며 저자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힘썼으며,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⁸⁵⁾

(2) 설교의 자료

칼빈 설교의 원천적인 자료는 신구약 전체를 가리킨 성경이며,⁸⁶⁾ 또 하나는 회중들이 직면한 문제와 그들의 주변을 보는 설교자의 안목과 이해이다. 설교는 결코 논리적인 것이나 수사학적인 교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인 설교는 성경에 대한 비범한 통달이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교는 회중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회중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온전한 설교전달이 힘들다. 그러므로 회중들의 삶과 형편을 돌보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인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성도들의 정치, 경제, 사회, 가정생활 등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설교하려고 하였다.

또한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설교자료는 설교자의 지적훈련이었다.⁸⁷⁾ 그래서

85)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80), p. 27.

86) 그래서 칼빈은 설교자를 “하나님 말씀의 종” 또는 “말씀의 사자”라고 불리웠다. 정장복, 『설교학 강의』, (서울: 양서각, 1982), p. 92.

87) 그는 메모 없이 설교를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면 설교를 위한 부차적인 준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가 성경에 관해 알고 있는 굉장히 깊은 지식과 폭넓은 독서는 그가 해야 할 말을 언제 어디서나 꺼낼 수 있도록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었다.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p. 267.

칼빈은 신명기 5장 23-27절의 설교에서 “만약 무엇보다 먼저 학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사역자가 결코 되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⁸⁸⁾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설교자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선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지식의 수준, 그 역사와 문화, 풍습, 사조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칼빈은 하루에 평균 일회의 설교를 하면서 그의 첫 목회 10년 동안을 거의 성경을 계속해서 설교했다. 그의 해박한 일반지식과 성경지식이 그의 명석한 논리와 간결한 표현과 박력 있고 인상적인 문장으로 그의 주석을 이루었다. 우리는 그의 주석에서 문장력과 사상적 깊이와 넓이를 가진 대 설교자 겸 대 신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3) 설교의 구조

칼빈의 설교의 구조는 주해에 의해 결정된다. 그는 설교의 대부분은 한 절이나 한 문장을 설명하고 난 후에 회중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연관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⁸⁹⁾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 구조는 융통성과 자유스러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강해 설교 방식을 따르고 있는 그의 구조는 정확한 요점을 이야기할 줄 아는 그의 수사학적인 능력 때문에 산만해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점은 이만큼 해두지요”라든지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들 보셨지요?”라는 말투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설교 내용이 너무 토막 토막 나누어질 수 있는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⁹⁰⁾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설교의 근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였는데, 그의 설교는 본문 자체 외에는 별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칼빈

88)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London Oliver and Boyd, 1953), p. 120.

89) Lorey Nixson, *John Calvin: Expository Preacher*, (Grand Rapids, Michi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p. 35-40

90) *Ibid.*, p. 40-43.

의 설교가 명확하게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전하고자하는 본문의 의도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다.⁹¹⁾ 예를 들어 그의 설교의 서론은 “우리는 어제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로 열고 있으며, 결론에 이르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⁹²⁾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부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설교를 꾸려 나갔다.⁹³⁾ 이렇듯 칼빈은 설교 구조에 있어서 특별한 것은 없을지라도 주해에 따라 설교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4) 설교의 문체

칼빈 당시의 설교자들은 화려함과 모호함을 자랑하는 중세 시대의 특성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칼빈은 이러한 중세 시대의 설교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설교의 문체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하였다. 칼빈은 그의 설교 언어를 사용할 때 무엇을 꾸미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칼빈의 설교는 단순성, 명쾌함, 그리고 힘찬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이 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⁹⁴⁾

한편 칼빈은 회화적 단어와 생생한 단어들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많은 문장들이 구체적 단어와 발랄한 단어들로 빛을 발한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위대함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그를 능가할 만한 설교자들이 별로 많지 않다.⁹⁵⁾

91)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p. 189-190.

92) Lorey Nixyon, op. cit., p. 38.

93) Ibid.

94) 정성구, “강해 설교자로서의 요한 칼빈,” 총신대학부설 한국교회문제연구소 편, 『목회자와 설교』, (서울: 풍만출판사, 1987), p. 89-90.

95) Harold Dekker, op. cit., p. 26.

하늘과 땅을 보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땅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선포하시는 생생한 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통해 스스로를 보여주시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호하시는 형상이 성경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가 하늘과 땅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치밀하다. 해와 달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지는 못한다.⁹⁶⁾

칼빈의 문체가 추상적이며 만연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설교 문체가 따뜻하며 다채롭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칼빈은 자주 동물의 생활로부터 유추된 비유와 은유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날개도 없이 이빨로만 달에 가겠다고 자”와 같다. 또는 “수탉처럼 자기들의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와 같다.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사악한 자들은 “돼지처럼 주둥이를 땅바닥에 쳐 박는다.” 우리가 믿음에 반대되는 여론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재갈을 씹는다.” 어떤 본문은 “우리의 뿔이 뽑혀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두꺼비처럼 뛰면서 마치 말처럼 달리는 것처럼 상상한다.”⁹⁷⁾

이러한 예들은 아주 많이 발견된다. 비록 이러한 표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잡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칼빈 시대의 독특한 특징이었으며, 현대의 설교도 설득력 있는 연설의 표현으로써 칼빈의 문체에서 볼 수 있는 평이함과 이해하기 쉬운 비유와 은유들을 필요로 하는

96) T. H. L. Parker, *The Oracles of God*, (London and Redhill: Lutterworth Press, 1947), p. 77.

97) Harold Dekker, op. cit., p. 27.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칼빈의 언어는 성경 자체의 언어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도 주목되어야 한다. 현대의 현학적이며 세련된 문체가 오히려 우리가 설교하는 바로 그 말씀의 효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왜냐하면 미사어구를 사용한 인위적 노력들이 오히려 말씀의 생동감을 죽이며, 말씀의 예리함을 둔하게 만들고, 말씀의 심각하고 진지함을 무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이 자기의 언어를 선택한 것은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꾸미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의 문체가 미사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구어체로 표현되어진 것은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⁹⁸⁾ 단순함과 명쾌함과 힘에 있어서 칼빈이 사용한 문체가 그의 실질적인 목적에 아주 적합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5) 설교의 전달방법(기술)

칼빈은 고전 1:17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

웅변이 복음의 단순성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주인에게 봉사하는 하녀처럼 그것을 섬길 때에 웅변은 복음의 단순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웅변은 비난받거나 경멸 받아서는 안 된다. 웅변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사어구에 매혹되거나 공연히 들뜨게 만들거나 또는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 주는 경향이 없으며, 또한 화려한 외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우는 일도 없다. 오히려 웅변은 복음의 본래의 단순성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발적으로 낮춤으로써 단순한 복음 선포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요컨대 복음 선포의 일익을 담당한다.⁹⁹⁾

98) Ibid., p. 28.

99) T. H. L. Parker, *The Oracles of God*, p. 65.

칼빈이 말하는 웅변이란 수사법을 가리킨다. 그는 수사법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면서 찬양한다. 칼빈이 자신의 설교를 더욱 더 빛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수사학 때문이었다.

한편 파커(T. H. L. Parker)가 칼빈의 설교사역 부분에 대하여 연구한 것을 보면, 칼빈은 그의 강단에서의 실제 설교를 하는 모습은 생동감과 열정이 넘쳐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회중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자세하고 직접적이었으며 분명했다고 한다.¹⁰⁰⁾ 이 말은 설교가 칼빈의 전부였다는 말과 같다. 많은 내성적인 사람들처럼 그는 강단에서 자신을 잊을 정도로 몰두할 수 있었으며, 글을 쓰는 만큼이나 쉽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할 수가 있었다. 또한 그는 거칠고 격렬하게 성을 낼 줄도 알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울 줄도 알았다.¹⁰¹⁾

칼빈은 지식적으로도 풍부한 천재학자였지만 설교할 때 학술적이거나 기술적인 용어는 피했고, 간결하면서도 단순하게 말하여 청중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칼빈은 의도적으로 추상적인 어휘들을 피하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언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나온 매혹적인 예화를 사용했다. 그리고 칼빈은 자주 동물 생활로부터 비유법과 효과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은유법을 쓰기도 하였다. 욕기에 관한 설교에서 예를 들면 타락한 자들을 “개들처럼 짚는 자”로, 불신자들을 “다루기 힘든 말들” 같다고 했다. 또한 무절제한 젊은이들을 “겨우 삼일 만에 부화한 어린 병아리 같다”고 했고, 교만한 자들은 “날개도 없이 치아로 달을 취하려 하는 자” 또는 “공작처럼 깃털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했다.¹⁰²⁾ 오늘날 이러한 강력한 상징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칼빈이 자신의 설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였던 것들이다.

100)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p. 191.

101) Ibid.

102) Harold Dekker, op. cit., p. 23.

(6) 칼빈 설교의 신학적 강조점

교회의 모든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 칼빈처럼 일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의 신학의 기본 구조는 25세에 『기독교강요』 초판을 집필할 때부터 50세에 마지막 판을 집필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관성이 그의 교리학, 그의 편지들과 소논문들, 그리고 주석서들과 설교에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설교에 나타나 있는 특별한 신학적 강조점을 주목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의 설교 방법을 특징 지워주며 또 그의 목회 기술을 암시해 주기 때문이다.

칼빈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것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성(theocentricity)이다. 그의 일반적 사상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러한 그의 설교의 특징을 잘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의 설교에 있어서 이것의 실제적인 효과는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교훈적이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설교자의 권위이며 동기이고, 모든 설교의 자료이며 대상이고, 또 모든 설교문의 불변하는 중심적 준거이다. 또한 그의 설교에 있어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게 묘사된다.¹⁰³⁾

루터에게 있어서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 반면, 칼빈에게 있어 설교의 목적은 삼위일체의 구속주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칼빈은 삼위일체의 각각의 인격을 언급할 때 따로따로 구별하여, 즉 성부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각각의 인격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각각의 위격을 성부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우상 숭배의 위험과 같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위격”(pers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주저하면서, “실체”(substance, hypostasis)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다.¹⁰⁴⁾

103)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인격을 구별하여 언급하지 않은 채, 며칠동안 또는 그 이상을 매일 같이 설교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는 일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포괄적인 용어으로써 신을 지칭한다. 아주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구약성경 설교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적(Christ-centered)으로 강해하는 것을 특별한 의도로 생각하는 루터의 설교와 아주 대조적이다. 김금용, “설교의 한 신학 :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 『신학이해』, 제23집 (2002. 7), p. 263.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 중심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체제와 또 인간 중심의 자유주의 철학도 논박했다. 또한 그는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 또는 제3위와 같은 어느 한 위만을 특별히 강조하는 일단의 종파들 사이에 만연된 사조를 논박한다. 칼빈의 설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논증적인 구절들을 늘 명백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⁰⁵⁾

한편 칼빈은 성령 중심의 신학만 강조하게 되면 운명론적 주관주의(subjectivism)로 향하는 첫 단계가 되기 쉽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만을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로 조금씩 다가가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이 두 사실은 칼빈의 설교의 줄기이며, 꽃이며, 뿌리이다. 이것을 볼 때 칼빈의 설교의 입장과 현대 설교에서 나타난 이론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설교가들은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 위별로 독립적으로 분산시켜서 언급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런 경향은 설교에서 뿐만 아니라 목회기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포괄적이고 함축성이 풍부한 명칭으로 삼위일체를 동시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theocentricity)인 신학적인 틀 안에서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⁶⁾

뿐만 아니라 칼빈의 설교의 신학적 특징 중의 하나는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조이다. 특히 칼빈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조라든지 선택에 대한 강조점도 역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로서의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교리를 성도의 위로로써 사용되었던 것이다. 칼빈의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추상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으며, 고의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바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연관되어져 있다. 칼빈의 설교에서 주권적 은혜는 선택의 지속적인 강조와 더불어 모든 설교의 주제였다.¹⁰⁷⁾ 칼빈의 설교는 그것이 단

104) Harold Dekker, op. cit., p. 28.

105) 김금용, op. cit. 263.

106) Ibid., p. 266.

순히 신학의 일부분이거나, 성경의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아래 있는
구원과 성도들의 삶 전체를 다루며,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의 설교였다.¹⁰⁸⁾

107) Ibid.

108) 정성구, “강해 설교자로서의 요한 칼빈”, p. 88.

제5장 설교자로서의 칼빈연구가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오늘날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설교자들에게 칼빈은 신학자나 주석가로서 뿐만 아니라 설교자로서의 좋은 모델임이 증명되었다. 이제부터는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교자로서의 칼빈 연구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우선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강단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그것을 극복할 설교자로서의 칼빈의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한다.

제1절 연구를 통해 바라본 오늘날의 한국 교회 강단의 문제점

지금 한국교회는 오직 말씀만을 열망하고, 그 말씀 속에서만 개혁의 길을 건던 청교도의 후예들이 이 땅을 찾아와 복된 소식을 전한지 이미 1세기를 훌쩍 넘어섰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포사이드(P. T. Forsyth)의 “교회란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는다”¹⁰⁹⁾는 표현처럼,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말씀의 뿌리를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서운 강단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개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비복음적인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시키고 있다.¹¹⁰⁾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든지 다 동원되어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여 설교는 지나치게 물량적으로 되어 버렸고, 설교의 틀은 상업적으로 되어 버렸다.¹¹¹⁾ 한편 지금껏 하나님의 종이 외친 하나님의 말

109) 정장복, 『설교 사역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0), p. 74.

110) 정성구, 『한국교회 설교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사, 1987), p. 394-395.

씀으로만 여겨왔던 설교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지루하고 신선하지 못한 설교에 짜증을 내면서 들을 귀를 막아 버리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¹¹²⁾ 이처럼 한국 강단은 오염되었고, 교회와 교회 속의 회중들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 나라에 25%라는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의 부조리와 악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설교는 있으나 말씀이 없는 시대이다. 그 결과 말씀의 선포는 이미 사양기에 접어들었고,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 목회자와 회중은 물론 설교신학자 모두가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강단의 문제점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제 우리는 한국 개신교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설교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설교자와 설교 내용 그리고 회중에게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설교자의 문제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을 위기로 몰아넣는 가장 큰 요소는 다름 아닌 설교자들 자신이며, 바로 그 설교자들에 의해 한국교회의 강단은 심각하게 어지럽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설교자의 표리부동한 생활이다.

정장복은 한국교회의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조사한 “설교 사역자에 대한 평신도의 의식 구조 분석”¹¹³⁾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바 있다. “귀하가 아는 설교자들이 그들이 하는 설교와 삶의 연관성이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자의 80.2%가 “완전치는 못하지만 설교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10.3%는 “설교자는 설교하는 대로 생활한다”라고 대답하였

111) Ibid., p. 396.

112)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1999), p. 270.

113) 정장복, 『설교 사역론』, p. 155-156.

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진지 10년이 넘어선 지금의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에 대한 인식은, 설교자가 하는 설교의 내용과 설교자의 삶 가운데 심각한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회중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자의 메시지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설교자들이 ‘생활하는 집과 말씀의 집’을 같이 지어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교자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설교자의 실제의 삶이 일치되지 못할 때, 그 설교자의 메시지는 회중들에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로 밖에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설교자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이지 설교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망각한 권위주의적이며 독선적인 설교자로 하여금 한국교회의 설교의 현장은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은 설교 도중에 설교자가 회중에게 “바랍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와 같은 표현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멘’이라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회중의 응답이다. 그러나 설교자가 믿고 축원하는 말끝마다 ‘아멘’을 해야 하는 장면은 냉정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¹¹⁴⁾ 설교자 자신의 기분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설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멘’을 요구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회중들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맹종의 종교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로, 설교 준비의 불성실성에 있다.

최근에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바 있는 ‘한국갤럽’¹¹⁵⁾의 통계에

114)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p. 46.

의하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 그들은 목사의 지도력이나 생활이나 행정 능력보다 설교가 최우선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 때문에 자신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대답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설교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설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설교자들이 막상 설교 준비를 위하여 내놓은 시간이 전체 활동의 3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¹¹⁶⁾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은 새벽설교, 주일 밤 예배 설교, 삼일 기도회 설교, 금요일 철야 기도회 설교, 특별예배, 각종 심방, 거기에다가 각종 행사와 기타의 일에 대하여 교회 사찰이 하여야 하는 일까지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하고 교회가 대형화됨에 따라 설교자는 많은 업무가 뒤따르게 된다.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과 재산 관리, 그리고 대내외적인 제반 문제 등이 있다. 이렇게 목회자의 임무가 과중 되다 보니, 목회자는 설교자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 설교준비 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강단에 올라가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영적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

다섯째, 신학과 성경지식이 부족한 설교자이다.

설교자는 말씀의 종이다. 특별히 말씀을 강조한 개신교에서는 설교자의 자기 인식과 그 임무를 가장 소중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의 강단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설교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의 봉사자가 아니라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교자가 자

115) 한미준,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활동 및 신앙 의식 조사 보고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p. 110-111.

116)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p. 37-38. 정장복은 설교 준비에 최우선을 두는 설교자는 25분의 설교를 위해서 최소한 25시간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매일의 오전 4시간은 설교 준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흥미진진한 예화를 나열한 후에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본문을 들려주는 현상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¹¹⁷⁾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식과 분석, 또는 경험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문을 선택하고 인용한다. 이러한 안타깝고 부끄러운 장면은 한국교회에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되는 설교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성경의 지식이 결여되어서는 올바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으며, 성경지식의 결여는 곧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대한 결여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부를 설교하여야 한다. 즉 성경 전체의 계시의 구조와 관련시켜 설교하여야 한다. 건전한 신학의 바탕 위에서만이 건전한 설교가 행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는 구속과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사역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하며, 성경신학의 방법을 통하여 특별한 시대에 나타난 특별한 계시의 구속사적 의미를 연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관점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에는 신학과 성경지식의 부족으로 이러한 선견자적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게으른 설교자이다.

현대는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독서를 많이 하고 좋은 재료를 수집하고 새로운 전달 방법을 연구하고 습득하여 새 시대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단순한 자기 경험의 연장과 그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낙후된 설교자로 인하여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마치 자신의 설교가 최상의 단계에 이른 것 마냥 믿고 더 이상의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착각에 빠진 게으른 설교자들이 너무 많다. 설교자는 성령님의 손에 잡힌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설교가 수록되어진 녹음과 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설교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자나 깨나 명령을

117)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p. 39.

기다리고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 애쓰는 모습이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의 설교를 도용(盜用)하는 설교자이다.

설교자를 부르심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 메시지는 한 개인에게까지 가장 숭고한 체험을 가져와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받아먹었던 만나처럼 신선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한 주간 내내 말씀의 전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을 치면서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에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말씀에 먼저 용해되는 감격을 경험하고 난 후에 회중 앞에 서서 그 감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¹¹⁸⁾ 그래야 회중들도 설교자가 감동한 그 메시지에 감격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의 기현상(奇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설교집이 당연한 경쟁처럼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설교집에 등장한 설교들이 가감 없이 설교자들에 의하여 그대로 복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¹¹⁹⁾ 자신이 먹고 가꾸는 양들을 위하여 목자는 더 좋은 꼴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팟 흘림이 없이 다른 목자가 이미 먹어버린 것을 가져다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내 양들에게 먹이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양들은 파리해져가며 영양실조에 걸려 병들어 죽기도 한다.

이외에도 한국교회의 강단을 어둡게 하는 설교자들의 모습이 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서부터가 설교자의 말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설교가 있다. 자신이 준비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가 좌정(坐定)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목사직이 하나의 괜찮은 직업으로 이해되어지면서, 위로부터의

118)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p. 35.

119) Ibid., p. 35-36.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이 없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명 의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설교의 형식화’를 낳고 있으며, 설교의 메시지는 생명력이 약화되고, 설교 역시 목회의 수단과 방편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만 해도 설교 전문인을 위한 교육 과정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 점도, 한국교회의 강단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 되고 있다.

(2) 설교 전달과 내용의 문제

앞에서는 설교자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국 교회 강단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한국 강단의 설교적 상황에서 발생되어지는 설교 전달과 내용의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첫째는, 과도한 설교 횟수의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설교자가 감당해야 하는 설교의 횟수와 그 양은 실로 지탱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최소한 주일 낮과 밤, 그리고 수요일 밤만을 계산해도 1년에 165회의 설교를 해야 하고, 10년이면 1,560편의 설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연 이런 짐을 설교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한 설교자가 소유하고 있는 언어와 지식은 한계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늘 신선하고 역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¹²⁰⁾ 그러므로 설교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설교자와 회중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설교이다.

영국 성공회의 신학자였던 브룩스(Phillips Brooks)는 “설교란 한 사람(설교자)에 의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진리를 운반하는 방편이다.”¹²¹⁾라고 말한 바 있다. 브룩스는 설교자를 진리의 운반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1세기 전에 설교와 커뮤니케이션의 상

120) 정장복, 『한국 교회의 설교학개론』, p. 29.

121) Phillips Brooks, *Eight Lectures on Preaching*, (London: S. P. C. K., 1959), p. 11.

관관계를 뚜렷이 밝혔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근원은 설교자이다. 설교자의 임무는 성경적 진리를 취하여 언어적, 신체적, 음성적 자극을 통해 그것을 조화있게 혼합할 수 있는나에 달려 있다. 설교자가 회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회중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지 못한다.¹²²⁾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설교자의 일방적인 전달방법에 의하여 설교자와 회중간의 간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설교자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회중들은 감동과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예언적 설교의 부족이다.

신약과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들이 살던 사회의 부정과 부패,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는 각종 범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백성들이 가야할 길을 바르게 지적하고 책망하며 제시하는 설교를 하였다. 다시 말해 예언적인 설교를 하였다.¹²³⁾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성경의 예언자들처럼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과 퇴폐적인 풍토, 그리고 정치적인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지적해 주고 갈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실이라는 각박한 상황 속에서 몸조심하고 말조심한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명령과 이웃사랑의 명제를 잊고 있는 예레미야시대의 거짓 예언자¹²⁴⁾와 같은 자들이 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122) 설교자가 메시지를 외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 메시지에 대한 듣는 자의 이해와 태도가 설교자의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p. 330.

123) 이 설교는 다른 설교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설교로서, 설교자의 목숨을 내건 선지자적인 용기와 도전 속에 외치게 되는 참으로 값지고 귀한 설교이다. Ibid., p. 149.

124) 다음은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예레미야 14:14)

넷째, 비복음적이고 비신앙적인 설교의 남발이다.

우리의 과거 역사는 한마디로 배고픔의 고달픈 역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는 언제나 복을 추구하는 사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민족전체에게 퍼져 있었다. 여기에 편승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역시 지나칠 정도의 기복주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으며, 그것이 거의 매주 설교자의 입에서 전달되어지고 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마치 설교자가 주는 것처럼 복 받으라고 외치는가하면, 심지어는 성령도 설교자가 주는 것처럼 성령 받으라고 외치기도 하고, 방언도 설교자가 주는 것인 양 방언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설교자들이 있다. 이처럼 설교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비복음적이고 비신앙적인 기복 신앙을 양양시키는 한 한국교회의 강단에는 희망이 없다.

(3) 회중의 수용의 문제

설교는 예배가운데 행해지는 것이며, 이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과 회중이 서로 소통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설교 역시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¹²⁵⁾ 그러므로 설교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해보면 문제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회중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회중들이 지닌 위기적 요소는 무엇인가?

먼저, 회중들은 지극히 기복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 강단은 이 땅의 종교 문화에 너무 극심하게 편승을 하고 있다. 즉 가난을 탈피하고 한을 풀어 풍족한 복을 누리려는 절박한 욕구를 종교에서 채우려는 신앙심을 그대로 수용하는 메시지가 범람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회중의 가슴을 울리고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적 설교의 현장에는 교인들이 모이지를 아니하고, ‘축복의 성회’, ‘신유의 성회’, ‘은사의 성회’라는 간판이 달린 곳에

125)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이 연구 발전됨에 따라 듣는 회중들의 책임이 설교의 사역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론이 설교학에서는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다. 정장복, 『예배학개론』, p. 277.

만 성도들의 발길이 무수히 물리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¹²⁶⁾ 바로 이런 사연들이 오늘의 설교 사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중의 기복 위주의 취향에 따라 주지 않는 설교자는 외면당하고 떠나 주기를 바라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성도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회중들의 비능동적인 참여다.

설교의 현장에는 두 형태의 회중들이 앉아 있다. 하나는 자신에게 설교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회중의 형태로서, 설교자의 남다른 내용과 화술과 전달이 자신을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는 수동형의 회중이다. 다른 하나의 형태는 스스로 설교자와 함께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 속에 스며들고 거기서 자신이 필요한 양식을 추구하는 능동형의 회중이다.¹²⁷⁾ 그런데 한국교회 회중들은 수동형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때로는 ‘설교를 들어주는 존재’로서 앉아 있는 습관적이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설교란 설교단의 설교자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의하여 이룩된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회중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열린 마음속에 설교자를 택하여 증거케 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참된 만남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 회중들의 습관적인 아멘의 응답이다.

우리의 한국 교회는 1960년대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이 설교현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설교자가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와 같은 종결어를 사용하면 회중들은 무조건 ‘아멘’의 함성을 지르고 있다.¹²⁸⁾ 물론 이러한 현상은 설교자들에 의하여 요구되어진 데서 출발한 것임에

126) 오늘의 회중들은 내게 주신 은총 앞에 무엇을 보답하며 그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에 대한 관심보다 무슨 복을 더 받아 어떻게 잘 사느냐에 더 많은 정력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Ibid., p. 278.

127) Ibid., p. 279.

128) 정장복, 『예배학개론』, p. 282-283.

틀림이 없다. 또한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결코 비 성경적이거나 탈선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반강제적인 요구에 의하여 회중이 깊은 신앙적인 고백이 없이 습관적으로 ‘아멘’의 장단을 맞추는 것이라면 이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설교의 내용에 감동이 되지 않는데도 회중들이 설교자의 강요에 의하여 ‘아멘’의 응답을 보내는 것은, 설교자에게는 그의 기분을 북돋아 주는 행위이며, 또한 회중들에게는 맹종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중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교가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을 낳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회중들은 변화가 없고 실천에 대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회중들이 신앙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이고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현대문명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제공하는 흥미 있는 일들이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으며, 이러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 교회 강단에 새로운 장을 펼쳐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설교 사역은 이제 회중의 태도를 심각하게 진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것은 설교의 성패가 설교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말씀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길은 회중들의 도움과 참여 속에서 완성된다. 이제 한국 교회의 회중들은 말씀과의 참된 만남을 위하여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감정의 기분에 의지하지 않고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며,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된다.

제2절 설교자로서의 칼빈 연구를 통해 얻은 교훈

지금까지 칼빈의 생애와 제네바에서의 설교 사역, 그리고 설교를 구성하는 성경과 설교자와 회중에 대한 칼빈의 인식을 통하여 그의 설교관을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칼빈의 설교를 연구하여 칼빈의 성경해석 방법과 설교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설교자와 설교 전달 및 내용, 그리고 회중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글을 마무리 지으며 설교자로서의 칼빈 연구를 통하여 얻은 모든 것을 종합하여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 강단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앞에서 연구한 순서대로 설교자와 설교 내용, 그리고 회중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설교자에게 주는 교훈

(가) 뜨거운 소명 의식

칼빈은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설교자라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말씀 사역에 충실하였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개혁자로 살았던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간파하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직책을 밝히고 있다. 그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신념은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 돌리는 일이었다.¹²⁹⁾ 칼빈은 자신의 설교 사역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설교자의 소명 의식의 부재다.¹³⁰⁾ 설교자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 설교자가 서 있는 현장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떻

129)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p. 205.

130)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p. 77-78.

게 그 소명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신 위에, 이 길만이 평생 동안 설교자가 걸어야 할 외길임을 믿고 어떤 시험이나 위협과 곤란에 직면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설교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

비록 칼빈이 그의 작품에서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강조하면서,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수많은 조언을 주고 있지만, 그는 사실 “복음의 시중을 위해 맡겨진 가장 빛나는 재능들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어떤 능력도 발휘될 수 없음”¹³¹⁾을 첨가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칼빈은 설교자를 만드는 존재가 성령님이며 그 설교자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말씀이 회중에게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설교에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설교자의 당연한 몫인 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이러한 당연한 몫을 설교 현장에서 변함없이 감당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예언자들은 그들이 말하고 싶을 때에 말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늘로부터 선포하도록 위임받은 것만을 전한 성령님의 발성기관이었다”¹³²⁾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칼빈은 설교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설교자의 테크닉에 의해서 은혜를 받거나 놀라운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은 칼빈처럼 먼저 자신의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위한 자기 성찰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쌓아야 하며, 명령되어진 성령님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한 남다른 영성의 개발과 성장의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131) ICR, I, 7:4.

132) comm. 2Timothy 3:16.

(다) 설교 준비와 전달에 대한 연구 자세

칼빈은 성령에 주어진 것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전달하였다. 그는 설교란 청중들의 이해력에 부응하여 각 신자가 그 설교에서 자신의 몫과 분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목사는 마치 유모가 그의 어린 아이와 함께 말을 더듬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투른 화법을 쓰시는 하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³³⁾ 이를 위하여 칼빈은 주장하기를 청중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듣는 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잘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어법과 비유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칼빈이 자신의 설교를 더욱 더 빛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수사학 때문이었다. 그는 설교할 때 학구적이거나 기술적인 용어를 피했고, 그것이 필요할 때는 주의 깊게 설명을 했다. 특히 추상적인 어휘를 피했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언어들에 간결하고도 쉽게 사용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나온 매혹적인 예화를 사용하였으며, 비유법과 효과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은유법을 사용하였으나 장황하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칼빈은 설교가 효과적인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학을 통한 적절한 표현으로 회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설교자들도 수사학적인 요소를 설교에 도입하여 준비한 설교의 전달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칼빈의 설교 사역은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는 철저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과 불타는 열정, 한 편의 설교를 위하여 개인적인 연구와 독서에 몸을 바치는 투지, 회중과 그 상황에 맞는 구절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세, 자신의 병약함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여 승리해 낸 불굴의 정신,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충분히 먹지도 못한 채 빈번한 금식까지 행하면서 자신에

133) 칼빈은 이 규칙을 작성하면서 라틴 수사학자들과 고대 교회신학자들 특히 오리겐과 어거스틴을 본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연설이 적용의 원리 - 연사는 청중의 이해에 적응한다는 것 - 에 입각해야한다고 보았다. 박건택, op. cit., p. 68.

게 맡겨진 설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자 하는 충성심 등은 한국 교회 설교자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줄 것이다.

(2) 설교 내용에 있어서 주는 교훈

(가) 성경을 기초로 한 설교

설교란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해석해 주고, 적용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설교의 격식을 위하여 그저 읽고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 하다든지, 설교의 내용이 그 말씀과 무관한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어느 경우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은 오늘의 설교가 근본적으로 성경의 말씀 안에서 출발하고 결론을 맺어야 하며, 모든 설교자는 성경의 충실한 문하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¹³⁴⁾ 이에 칼빈은 철저히 성경을 기초로 하여 성경에 충실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다.¹³⁵⁾ 그리고 그는 인간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안에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교의의 보고(A Depository of Doctrine)”¹³⁶⁾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칼빈의 설교에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해석해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설교란 단순한 경험의 발표 및 교리전달이나 윤리적 교훈의 전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전달이 가장 중요한데, 칼빈의 설교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가 그의 설교의 주를 이루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성경적인 설교가였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칼빈은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느 순간이든지 설교자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 성경이 말씀 중심의 자리로 돌아오며,

134) ICR, IV, 2:4.

135) “우리들이 강단에 올라갈 때 우리 자신의 꿈이나 환상을 거기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믿고 실천한 칼빈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신의 사상을 선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lyde E. Fant, *op. cit.*, p. 138.

136) ICR, I, 6:4.

참된 진리의 선포와 항구적인 영적 회복을 바라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강단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성경을 모른다거나 성경에 설교의 원천을 충실히 두지 않을 때, 그 설교자가 행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대의 발전이나 어떤 형태로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의 주된 원천으로 삼고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확신을 회중에게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나)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통한 강해 설교

앞서 살펴보았듯이 칼빈은 문법적, 역사적 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주어진 본문에서 설교자와 회중이 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어떠한 말씀이 주어질 때 ‘삶의 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찰 혹은 석의를 통하여 그 당시의 의미를 찾았고, 그 말씀의 중심에 흐르는 기쁜 소식의 진리성을 해석, 또는 강해하여 줌으로써 회중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아울러 그는 발견된 절대 진리의 메시지를 복된 소식으로 당시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 줌으로써 선포된 진리가 구체화되도록 노력하는데 힘썼다.¹³⁷⁾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에도 강해설교의 시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칼빈과 같은 깊이 있는 해석과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삶의 적용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설교자들은 칼빈처럼, 자신이 전달해야 할 말씀에 대한 충분한 접촉과 대화,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 있는 회중들에게 적절히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 교리적인 내용에 중점을 둔 설교

칼빈의 설교가 교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설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본질적인 신앙

137) Lorey Nixyon, op. cit., p. 42-43.

과 연단과 성장을 심어주는 설교 즉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둔 교리 설교였다.¹³⁸⁾

이에 칼빈은 교리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온전한 기독교 진리를 깨우쳐 주었고, 이 당시 제네바 청중들은 이러한 칼빈의 설교를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진리의 분별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칼빈은 “만일 설교가 성경적 설명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명예를 손상당하고 말 것이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설교자는 단순한 교리를 제시하고 이것이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교리와 더불어 권면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¹³⁹⁾ 칼빈과 같이 교리 설교를 행하는 설교자가 많지 않거니와 간혹 있다 하여도 칼빈이 말한 것처럼, 단순한 교리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자들은 교리 설교를 통하여 기독교 진리를 가치쳐 주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교리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회중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권면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라)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설교

복음은 개인 구원의 차원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인 현실에 무관심해 버린 설교자는 진실한 설교자라고 말 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의 설교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칼빈의 설교를 보면, 그의 설교는 시대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음주나 음란과 같은 도덕적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성직자를 비난하고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종교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설교 사역에 포함시켜 이를 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¹⁴⁰⁾

이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 세

138) 칼빈의 교리설교는 기독교의 정의와 주석과 주해,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의 적용을 강조할 수 있는 설교였다. 박건택, *op. cit.*, p. 69.

139) *Ibid.*, p. 69-70.

140) *Ibid.*

계와 민족이 처한 문제에 무관심하고, 주변의 이웃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간과한 채, 교회 안에서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일대일 경건만을 회중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설교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설교에 종종 담고 있었던 칼빈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자들도 현재 이 세계와 열방이 처한 국가적 상황과 이 민족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의 상황,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들을 바르게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회중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제시해 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에 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다.

(마)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드러나는 설교

칼빈의 설교에 있어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게 묘사된다. 칼빈에게 있어 설교의 목적은 삼위일체의 구속주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며,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머리에는 단지 하나님이라는 공허한 이름만 떠돌 뿐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갖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¹⁴¹⁾

또한 그는 삼위일체의 각각의 인격을 언급할 때도 따로따로 구별하여, 즉 성부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각각의 인격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¹⁴²⁾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 또는 제3위와 같은 어느 한 위만을 특별히 강조하는 일단의 종파들 사이에 만연된 사조를 논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 중심적인 신학만 강조하게 되면 운명론적 주관주의로 향하기 쉽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만을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로 조금씩 다가서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볼 때 칼빈의 입장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에서 나타난 이론은 확

141) 김금용, op. cit., p. 263.

142) Harold Dekker, op. cit., p. 28.

실히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 위별로 독립적으로 분산시켜서 언급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포괄적이고 함축성이 풍부한 명칭으로 삼위일체를 동시에 설교하고 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적인 틀 안에서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칼빈의 설교처럼, 우리의 신앙고백의 내용이 되어온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에 근거하여 설교신학을 바르게 정립하여, 거짓되고 왜곡된 진리들로부터 구원받은 무리들을 온전히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회중들에게 주는 교훈

칼빈의 설교는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회중들에게도 설교의 책임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회중이 어떤 정신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하며, 그리고 설교를 듣는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설교자만큼이나 회중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설교의 한 몫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설교시 어린애들이 울거나,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문 밖을 지나가는 것을 못 마땅하게 여겼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라도 잠에 빠져 조는 사람과 깨어 있어도 설교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자들은 엄히 꾸짖기도 하였다.¹⁴³⁾

그 동안 한국교회 회중들은 예배시간에 자신들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교자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들을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든가 또는 전달의 방법이 회중들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날카로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설교를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회중들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비 성경적은 무엇이든지 거부되어야 하고 성경적인 것은 겸손한 순종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⁴⁴⁾ “우리 회중들은

143)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p. 61.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자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세는 회중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칼빈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칼빈은 참된 말씀과 거짓된 말 사이를 구별하게 해주는 최종적이고 분명한 판단 기준은 복음에 대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강조하였다.¹⁴⁵⁾ 칼빈의 말대로 만일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지 아니하시고 설교의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전달해 줄 수 없는 인간의 말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반대로 만일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신다면 듣는 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아주 클 것이며, 따라서 회중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셨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회중은 말씀을 들을 때 인위적인 생각을 첨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계시되기를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겸손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144)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말할 때에 그의 말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받아들일 것 같으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말쟁이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없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것에 반항하는 자는 피조물인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자신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T. H. L. Parker, *The Oracles of God*, p. 64.

145) 정장복, 『설교학 강의』, p. 64.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확실히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선 개혁자요 역사적인 설교가였음을 잘 알 수가 있다.

먼저, 칼빈은 자신의 설교 사역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며, 당시 카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권위의 소재를 교회에서 성경으로 옮기기 위해서 성경의 영감 문제를 특히 강조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교회와 그들의 전통을 비판할 수 있는 척도요 표준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설교 사역을 감당할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성경 주석에 필요한 성경원어와 외국어에 통달했고, 신학과 성경지식이 해박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이러한 지식을 추상적으로 인식하거나 그 지식을 그대로 회중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회중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적절하게 전달하였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 속에 의식적으로 삼위일체의 구속주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설교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학문과 경건 훈련뿐만 아니라 설교에 대한 목적과 주제 탐구 및 설교의 자료와 구조, 그리고 전달 방법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연구하였다.

칼빈은 자신의 설교 사역자로서의 이러한 모든 노력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였다. 그는 설교자를 만드는 존재가 설교자 자신이나 주변의 환경, 그리고 조건 등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 설교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하는 것인지 스스로 평가해 보았던 것이다.

그는 또한 설교를 듣는 회중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회중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이차적으로는 설교자만큼이나 회중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설교의 한 몫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칼빈의 모든 노력들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바람직한 말씀의 사역자로서 서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

제2절 제 언

이제 우리는 한 도시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던 칼빈의 설교활동을 깊이 있게 되새겨야 할 때이다. 그의 설교 사역 중에서 누구나 수용해야 할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설교 준비의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명한 소명의식에 대한 인식이다.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위탁을 받고 보냄을 받은 대사로서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소명의식이,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을 맡은 설교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설교의 주제나 본문이 정해지기 이전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도움 속에 말씀의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바른 출발이며, 그것이 설교자가 걸어야 할 정상적인 궤도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매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였던 칼빈처럼, 말씀의 준비 단계부터 시작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은 회중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한다.

셋째, 메시지를 운반할 도구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도구이며, 그 도구는 맑고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순수하고 성결한 도구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설교자로서 쓰임 받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칼빈처럼, 확고한 설교관을 바탕으로 하여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한 설교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수사학적인 방법들도 적절히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교자의 생활이 설교를 위한 생활이어야 한다.

한 조각의 신문을 읽는 데서부터 한 인간을 만나는 데까지 모두가 설교의 준비이며, 조용한 명상으로부터 동역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까지 모두가 설교의 준비와 연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삶이 설교가 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칼빈처럼,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설교 사역자의 위치에 걸 맞는 수준 높은 인격과 건전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영적 생활과 학문적인 생활도 균형 있게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자세로 칼빈을 본받아 설교 사역에 임한다면, 한국 강단의 설교자들은 개인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원에까지도 목표를 둔 말씀 선포자로서 어두운 세계역사를 밝히 비추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깊은 명상과 연구 가운데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의 삶 가운데 말씀의 비밀을 터득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칼빈과 같은 설교 사상이, 오늘날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에게 깊이 박혀 있는 강단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는 창조시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일하게 펼쳐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I. 한서

-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 엠마오, 1987.
-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한국문서 선교회, 1993.
- 박건택, 『칼빈과 설교』, 서울: 나미 출판사, 1988.
-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8.
- 신복운,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 문화사, 1993.
- 이양호, 『칼빈 :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형기, 『세계교회사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80.
- _____, 『한국교회 설교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사, 1987.
- 정장복, 『설교 사역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0.
- _____, 『설교학 강의』, 서울: 양서각, 1982.
- _____, 『예배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1999.
- _____,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1.
- _____,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 한국칼빈학회,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_____,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한미준,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II. 번역서

- Jones, D. M. Lloyd. 『목사와 설교』,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9.

- Parker, T. H. L.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 Dane, James. 『능력 있는 설교』, 송헌복·이태웅 공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0.
- Cavin, John. 『기독교 강요 최종판』, 김종흡·신복윤·이종성·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_____. 『칼빈 성경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서울: 성서원, 1999.
- _____. 『칼빈의 십계명 설교』, Benjamin Farldy 편역,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1.
- Murray, John.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 Haroutunain, Joseph. 『칼빈주석의 정수』,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Dunn, Samuel. 『요한 칼빈의 신학진수』, 김득용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Walker, Williston. 『기독교회사』, 송인철 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III. 양서

- Fant, Clyde E.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Waco, Texae: Word Book, Publisher, 1971.
- Pucket, David L. *John Calvin's Exegesis of Old Testament*, Lon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 Dekker, Harold. *John Calvin: Sermons From Job*, Grand Rapids, Michian: Baker Book House, 1979.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abridged ed.,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chigan: Wi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_____. Calvin's Commentaries, edited by David W. Torrance, Thomas F. Torrance,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3.

_____. *The Deity of Christ and Other Sermons*, Trans. Laory Nixonp,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Michigan, 1950.

Nixyon, Lorey. *John Calvin: Expository Preacher*, Grand Rapids, Michi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Parker, T. H. L. *Portrait of Calvi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_____. *The Oracles of God*, London and Redhill: Lutterworth Press, 1947.

IV. 논문

곽선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칼빈의 성경관”, 『교회와 신학』, 제4권, 1971.

김금용, “설교의 한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 『신학이해』, 제23집, 2002. 7.

손석태, “칼빈의 성경 해석”, 『칼빈과 개혁신학』, 1999.

이기철, “칼빈의 생애와 그 교육연구”, 『교육논총』, 제4권, 1989.

정성구, “칼빈의 설교연구(1)”, 『신학지남』, 제46호, 1979. 3.

_____, “칼빈주의와 설교”, 『신학지남』, 제44호, 1977. 9.

_____, “강해 설교자로서의 요한 칼빈”, 충신대학부설 한국교회문제연구소 편, 『목회자와 설교』, 서울: 풍만출판사, 1987.